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60호 [무게 제24673호] 주제 103(2014)년 9월 17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인터넷에 게재, 단행본으로 출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정을 2일 로씨야의 하바롭스크변방인터넷포럼에서 《하브린로. 루》가 올렸다. 홈페이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었다.

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를 스위스주제사상연구소가 8월 25일 인터넷포럼에 올렸다.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의 상세한 요지를 르르나사 회주의당 최고리사회가 8월 24일 인터넷포럼에서 《주제사상》에 올렸다.

《나가가자》를 에파도르 판파 리 출판사에서 최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나는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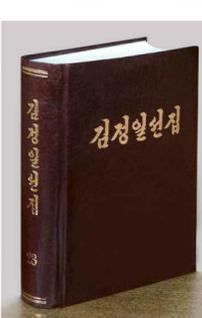
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신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사진 문헌 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분별책동을 짓부시고 전조선적인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시였으며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데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리오 빠노라마》3일부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나호트킨스키 라보지》3일부 《브리마르스키에 웨도스키》8일부도 우리 공화국을 존경하는 사회주의의 나라로 일떠섰으며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김일성동지께서 이끌어오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3권 출판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3권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를 에리코리아 평간출판사에서 8월 22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3권에 수록된 로작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선 속도창조를 위한 총돌격전을 과감히 벌리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고무추동하게 될 것이다.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대고조격전장마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자

인민경제의 선행판인 철도 운수부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거센 불길기 타고르고있다. 경제개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철도운수부 임원들과 근로자들이 9월에 들어와 보름동안에 전날 같은 시기에 비해 5만여t의 화력탄을 더 수송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적극 늘리고 철도운수를 비롯한 교통운수문제를 결정적으로 풀며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에서 련대적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주도해나가자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철도상의 임원들은 화력발전소들의 전력생산에 필요한 석탄수송전투를 광동적으로 벌리었다. 책임일군들부터가 대외의 앞장에서 이신 작위의 혁명적기풍을 발휘하며 철도운수부 임원들과 수송전사들을 증중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지난 3일 긴급회의가 있는 후 성의 많은 일군들이 북창철도분국을 비롯한 각지 철도국과 철도분국으로 내려갔으며 들끓는 현실에 몸을 푹 잠그고 능동적인 작전과 지휘를 짜고 들었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하루빨리 푸는데서 조건타발이란 있을수 없다는 비상

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화차머 무름상태와 상차정형 등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그에 따르는 철차운행계획을 면밀히 세운데 기초하여 화차들이 자꾸이름 제때에 함으로써 더 높은 화력탄수송률이 기록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기관차와 화차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상태에 따라 사정지휘를 예견성있게 짜고 들었으며 기관사들이 기공구들을 충분히 갖추고 운행중 기관차점검을 실정에 맞게 진행하

도록 하였다. 이러한 빈틈없는 작전과 지휘는 9월에 들어와 화력탄수송에서 현인 높은 실적을 기록할수 있는 요인으로 되었다.

나라의 전력생산을 결정적

보름 동안에 5만여 t의 화력탄 더 수송

철도운수 부문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

한 자각을 새겨받은 철도운수부 임원들은 화력탄수송에 기관차, 화차들을 우선적으로 견인장량보다 더 많은 짐을 끌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달려진 화력탄수송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신성천기관차대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기관차의 실행률과 화차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 화력탄집중수송의 승격을 고조시켰다.

이들은 기관차의 실행률이 중요물동수송실적이라는 혁명적자각을 지니고 내부에미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기관차운영과 수리전투를 긴장하게 짜고 들었다. 특히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기관차수리에 적극 받아들여 실행대수를 높이고 모든 기관사들이 맡은 구간들에 대한 철길상태를 잘 알고 그에 맞는 운행조치를 확립하도록 하여 더 많은 석탄을 실어날랐다.

북창철도분국의 수송전사들은 기관차, 화차들의 자전지수를 감시하고 합리적인 운전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리면서 나라의 전력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 대한 석탄수송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분국의 일군들은 로동제

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전방이 좋은 대형체결장을 타고갔을 판산로동제급은 광물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대형체결장을 마련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연간계획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이고 있다.

당의 전투적호소에 비약과 혁신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것으로 화합해나선 이곳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해 광물증산성과는 더욱 확대될것이다.

특파기자 박동석

30만 t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

상 능 광 산 에 서

새로운 전진속도,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대고조격투쟁마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상능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이 광물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광물증산의 불길을 앞세우고 체결장을 더덕히 마련하는데서 찾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당일 인계준 담력과 배정으로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30만 t 대발파를 진행하기 위한 통 제 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드센 사상공세를 벌이였다.

당일 인계준 담력과 배정으로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30만 t 대발파를 진행하기 위한 통 제 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드센 사상공세를 벌이였다.

당일 인계준 담력과 배정으로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30만 t 대발파를 진행하기 위한 통 제 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드센 사상공세를 벌이였다.

당일 인계준 담력과 배정으로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30만 t 대발파를 진행하기 위한 통 제 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드센 사상공세를 벌이였다.

당일 인계준 담력과 배정으로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30만 t 대발파를 진행하기 위한 통 제 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드센 사상공세를 벌이였다.

당일 인계준 담력과 배정으로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30만 t 대발파를 진행하기 위한 통 제 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드센 사상공세를 벌이였다.

청년들은 석탄증산투쟁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자

2. 8직동청년탄광 청년전위들 전국의 탄광부문 청년들에게 사회주의증산경쟁 호소

당의 뜻을 받들고 청년들이 석탄증산투쟁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될데 대한 호소문에 호응하는 2. 8직동청년탄광 청년전위들의 결기모임이 16일에 진행되었다.

청년들은 평안남도당위원회 비서, 리성호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평안남도의 탄광부문 초급청년동맹일군들, 2. 8직동청년탄광 청년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전국의 탄광부문 청년들에게 보내는 청년동맹중앙위원회 호소문이 광동적으로 화합해나선 이곳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해 광물증산성과는 더욱 확대될것이다.

특파기자 박동석

전력공업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업적 더 높은 증산의 불길로 빛내이자

오늘도 대동력기지 북창은 불멸의 역사를 전한다

전력생산을 늘일때 대한 당의 전 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대동력기지 북창이 증산의 거센 동음을 더욱 높이 울려가고있다.

굴지의 전력생산기지가 온 나라 각 지에 보내주는 전력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천만근민은 북창의 숨결을 대고 소의 숨결로 받아안고 북창과 뜻과 보복을 함께 하면서 전진속도를 높여가고있다.

발전설비들의 가동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긴장한 투쟁속에 기운차게 돌아가는 발전기들이며 세찬 열기를 내뿜는 보일러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나라의 생명선이라고 불러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믿음과 북창이 끓어오르는 나라가 활기를 띤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기대를 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 원수님의 웅대한 강성국가건설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가고있는 이곳 로동계급이다.

전력증산의 동음을 지켜신 이곳 로동계급의 억센 심장들에 귀를 기울여보시라.

그들의 심장속에는 대동강가의 대 평벌, 한적하던 이곳에 굴지의 대동력기지를 일떠세워주시고 전력생산자들을 우리 혁명발전의 격동의 년대들마다에서 조국의 벽한 숨결을 지켜갈 줄 아는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들로 내세워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고마움, 변함없는 충정의 맹세가 끓고있다.

그것은 북창의 영웅적인 투쟁전통의 핵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전력공업을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대동력기지 북창의 로동계급은 한여름의 땀방울이 내리쬐이던 주체 98(2009)년 8월의 이야기로 오늘도 소중히 전하고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다.

확약 단검을 품기는 8월의 속양 아래 그보다 더 뜨거운 거센 숨결을 내뿜고있는 발전소에 도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업소의 운영정형을 알아보려고 왔다고 하시며 연

혁소개실에 들어서시였다.

먼저 홀에 게시되어있는 기업소전경도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북창군을 찾으시어 발전소의 터전을 잡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친문헌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오늘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굴지의 대동력기지로 전변될수 있었다고 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주체적인 전력공업발전에 쌓으신 수령님의 업적은 참으로 위대하다고 말씀하시였다.

뒤에다보면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대공업의 기본동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인 전력공업의 발전에 한몫 담당할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위하여 바쳐오신 심혈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화력발전소는 수력발전소에 비하여 건설기간이 짧고 자금이 적게 들뿐 아니라 동력을 여러 방법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며 가동률에도 전력을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게 한다

고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바쳐오신 심혈을 보시려고 왔다고 하시며 연혁소개실에 들어서시였다.

먼저 홀에 게시되어있는 기업소전경도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북창군을 찾으시어 발전소의 터전을 잡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친문헌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오늘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굴지의 대동력기지로 전변될수 있었다고 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주체적인 전력공업발전에 쌓으신 수령님의 업적은 참으로 위대하다고 말씀하시였다.

뒤에다보면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대공업의 기본동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인 전력공업의 발전에 한몫 담당할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위하여 바쳐오신 심혈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화력발전소는 수력발전소에 비하여 건설기간이 짧고 자금이 적게 들뿐 아니라 동력을 여러 방법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며 가동률에도 전력을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게 한다

고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바쳐오신 심혈을 보시려고 왔다고 하시며 연혁소개실에 들어서시였다.

먼저 홀에 게시되어있는 기업소전경도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북창군을 찾으시어 발전소의 터전을 잡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친문헌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오늘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굴지의 대동력기지로 전변될수 있었다고 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주체적인 전력공업발전에 쌓으신 수령님의 업적은 참으로 위대하다고 말씀하시였다.

뒤에다보면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대공업의 기본동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인 전력공업의 발전에 한몫 담당할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위하여 바쳐오신 심혈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화력발전소는 수력발전소에 비하여 건설기간이 짧고 자금이 적게 들뿐 아니라 동력을 여러 방법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며 가동률에도 전력을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게 한다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공장을 돌리고 농사를 짓자고 하여도 전력이 있어야 하며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자고 하여도 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기업소의 전체 종업원들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언제나 명심하고 전력증산에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땅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할것을 믿는다고 고무해주시였다.

북창의 로동계급을 위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사랑은 그분이 아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대한 현 지지도로 마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걸로 어느 한 단락을 찾은것이였다. 그 소에 접한 북창의 로동계급은 발전소들에 보내 줄 설비관리로 갈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이요 말씀하시였다.

기업소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편향을 바로잡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북창에 석탄을 보장하게 되여있는 탄광들에서 석탄을 제때에 보내주고 철도에서는 수송능력을 짜고들어 전력생산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력생산상향의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헤아려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들모두와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너무도 뜻밖의 행복이 이곳 일군들은 몸들바를 몰라하였다.

은 나라에 약속하는 숨결을 안겨 주는 그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알아주시고 내세우시였으니 전력생산자들의 격정이 어찌 크지 않았랴.

감격에 목이 메어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기업소일군들을 미덥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는 나라의 전력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것만큼 그 위치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전력이 없이는 아무 일도



전력증산투쟁으로 들끓는 대동력기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본사기자 찍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적정품을 따라배워 사명감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주체 36(1947)년 11월 어느날이었다. 며칠동안 노력하던 끝에 전열기를 하나 얻은 일군들은 그것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에 가져다놓았다.

전기로 물을 펴서서 방안온도를 높일수 있게 만든 전열기는 방안습도도 맞추도록 조절할수 있어 더욱 좋았다.

일군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럴만 한 사연이 있었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해방된 조국에서 두 해 겨울을 보내시었지만 어느 하루도 훈훈한 방을 보지 못한 적이 없었다.

그이께서 계시는 단층 집은 벽이 얇고 문들이 많은 오랜 건물이었어선 지 겨울에 불을 많이 때 놓아도 새벽에는 방안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그래서 새벽에 또 한바탕 불을 지피려고 하면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였다.

일군들이 안타까와할 때면 그이께서는 산에서 싸울 때는 영하 40℃를 오르 내리는 추운 날에도 천막이 고 작이었다고, 그러나 군복을 땀 생기는 아예 하지 말라고 엄하게 가르치며 새벽마다 더위를 걸치고 일을 보시였다. 대소

한열기의 정 추운 때는 백두의 너장군 김정숙동지께서 정성껏 마련하신 자그마한 화로로 땀기를 가시곤 하시였다.

이것이 마음에 걸려 늘 모태 기던 일군들은 전열기를 구해왔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일군을 부르시어 이런 일을 할 때에는 꼭 자신에게 물어보고 해야 한다고 엄하게 타이르시고는 도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고 이르시였다.

사실 그때 나라의 전력사정은 매우 심각하였다. 폐망한 일제놈들이 도망가면서 전기생산설비들을 모두 파괴해버린데다가 요행 부구된 발전소들에서 생산한 전기도 전압이 낮아 별로 덕을 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나라의 전력사정이 아무리 심각하다 한들 하늘이 번 전설적영웅, 민족의 어버이인 어떻게 또다시 땀방에서 한해 겨울을 보내시게 할수 있랴. 그러하여 그 일군은 때를 쓰다싶이 이 전열기만을 허락해주실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단호히 거절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지금 나라의 전기사정이 매우 심각한 조건에서 내가 일하는 방이라고 하여 전열기를 놓아서는 안됩니다. 방에 전열기를 놓으면 방안의 공기는 더워질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마음은 더워질수 없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려면 전열기를 건어가야 하겠습니더라고 말씀하시였다.

하필의 20성상 비바람, 눈 바람을 다 맞으면서 뼈아픈 조국을 찾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헛바람 조국방에서 더러운 방에 변변히 모시지 못했던 우리 인민의 송구스러움과 퍼스름은 그 무엇에도 비길데 없다.

오늘도 사람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평양학생소년궁전의 건물을 끄지 않도록 하신 이야기를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하지만 나라의 긴장한 전력사정을 생각하시며 자신께서 계시는 금수산의사당(당시)의 바깥 등과 정원들, 지어 홀과 복도, 계단의 전등까지도 다 끄도록 하신 사실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몇몇 안될것이다.

나라의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물론 한W의 전력이라고 인민의 행복과 나라살림살이에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기 위해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찌 다 헤아릴수 있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올해 신년사에서 절박한 골 생산인민 전사적적으로 절약행동을 강화하여 한W의 전기, 한의 복도, 한방울의 물도 극력 아껴쓰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사람들이여, 일터와 가정에서 전설비들의 스위치를 켜고 꺼지 마시라.

해방후 방에 전열기를 놓으면 방안의 공기는 더워질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의 마음은 더워질수 없습니다. 방에 전열기를 놓아서는 안됩니다. 사업장에서 금수산의사당 복도, 계단의 전등까지도 모두 끄게 하시였던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언제나 심장에 고매한 풍모를 언제나 심장에 안고 살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모두가 높은 애국심과 위대한 태도를 가지고 한W의 전기라도 꼭꼭 절약하며 나라살림살이를 건지켜 나가는데 힘을 모으라. 나라의 전력사정을 생각하시며 나라살림살이를 건지켜 나가는데 힘을 모으라. 나라의 전력사정을 생각하시며 나라살림살이를 건지켜 나가는데 힘을 모으라.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거연히 솟아올라 지난 수십년간 나라의 전력증산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는 서두수발전소, 이 동력기지도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이 깃들여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호신하시였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입니다. 전력이 없이는 인민경제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력공업을 언제나 인민경제의 다른 모든 부문에 앞세워 발전시켜야 합니다.》

주체 59(1970)년 5월 어느날 함경북도의 사업원 현지에서 지도하고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서두수발전소건설일군회의회를 소집하시였다.

도를 찾으실 때마다 서두수발전소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건설력량과 건설방도에 이르

기까지 가르치심을 주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서두수발전소를 건설하면 많은 전기를 얻게 될뿐 아니라 서두수의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어 경제적인의가 대단히 컸다.

그날 일군들로부터 건설설계를 료해하시던 일 군장에

《나하고 같이 수표합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물결골공사장에서 굳은 암석층이 나타나 굴진속도를 대대로 보장하지 못하였고는 사실을 알게 되시였다.

머리를 들지 못하고있는 일군들을 바라 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물결골에 콘크리트포장을 해야 하는가, 안해도 되는가 하는것을 토론해 보라고 말씀하시였다.

지금까지 굴이라는 반드시 콘

크리트포장을 해야 하는것으로만 알고있던 일군들에게 있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참으로 뜻밖이었다.

잠시후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회의에 설계일군들이 참가하였는가를 알아보시였다.

한 설계일군이 일어섰으나 어 떻게 답변을 드릴지 몰라 당황

다내는 방법을 세우면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밝기는 많은 세멘트와 모래, 철강재는 물론 막대한 로력을 절약하는 데 대한 착상이었고 기발한 방법이였다.

발전소건설부에서 오래동안 일해온 자기도 찾지 못했

던 그 해결방도를 순간에 포착하고 명인중의 명안을 내놓은 신 우리 수령님의 비범한 통찰력과 과학적인 분석력, 담대한 판단에 의하여 건설된 서두수발전소는 오늘날 나라의 수력발전소건설에 바치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로고를 길이 전하며 믿음직한 동력기지로 위용을 떨쳐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그런 일 군들에 게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현재조건에서 무모장방법의 가능성에 대하여 다시 하나하나 일깨워주시는 다음 그 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나하고 같이 수표합시다. ... 순간 회의장은 크나큰 격정으로 열렸다.

물결골공사를 빨리 다그칠수 있는 지름길을 확히 밝혀주시고 또 도시 넓은 도랑으로 기술적문제까지 함께 토의해주시는 위대한 스승의 손길.

어버이수령님의 비범한 통찰력과 과학적인 분석력, 담대한 판단에 의하여 건설된 서두수발전소는 오늘날 나라의 수력발전소건설에 바치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로고를 길이 전하며 믿음직한 동력기지로 위용을 떨쳐

본사기자 리금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국장에 새겨진 수력발전소

주체 37(1948)년 봄 어느날 밤 소리가 깊어지고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국장도안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국장도안중심에 그려진 커다란 용광로, 이윽도록 생각에 잠겨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조용히 곁에 다가오신 함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 용광로대신에 전기화와 관련한 내용을 담는것이 어떨까고 물으시였다.

잠시 사색 하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의 구상을 찬성하시면서 발전소를 그려넣는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시였다.

하시며 국장도안에 연필로 수력발전소의 모형과 철림의 모형을 표시하시였다.

그후 국장도안은 심의자들의 만장일치의 찬성을 받았다.

하나의 발전기를 보시고도

어느해 가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발전소를 돌아보시였다.

손색없이 건설된 발전소에서는 발전기가 기운차게 돌아가고있다.

이곳을 찾은 여러 일군들은 그 광경을 전력생산의 세찬 숨결로 보아냈었으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심각한 문제를 포착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생각깊으신 눈빛으로 발전기를 이윽

성을 높여 중수형발전소건설과 운영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구상을 펼치시었던 것이다.

귀중한 밀 전

주체 36(1947)년 10월 어느날 아침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수공발전소를 찾으시였다.

이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수공발전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나라의 산업발전에서 수공발전소가 맡고있는 몫이 크다고, 수공발전소는 우리 나라 산업의 명맥이자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귀중한 밀 전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새 조국건설이 활발히 진행되면 전기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갈것을 필히 경고하시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

가져올 구상을 펼치시었던 것이다.

고있는 발전기들을 하루빨리 수리정비하여 돌리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날 김정숙동지께서는 발전소에 기술자들이 부족하다는것을 헤아리시고 우리 로동자들이 하루빨리 기술을 배워서 발전기들을 자체의 힘으로 돌리도록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전력증산을 위하여 제기되고 있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백두산녀장군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본사기자



나라의 전력공업발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기고있다. -전력공업에서- 본사기자 한 광명 찍음

사회와 집단을 위한 헌신속에 삶의 자욱을 새기여가자

인생의 보람은 어디에 있는가

최친한 돌과파한 인민과학자, 나라의 명을 떨친 인민체육인, 사정에 처한 환자들을 위해 낮과 밤을 보내는 의료일군과 교관을 지켜가는 선생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알고있다. 그들의 공적을 찬양하고 그들의 위훈을 자랑한다.

그러나 그들의 공적속에, 그들이 세운 위훈속에, 우리 모두의 생활속에 보이지 않는 밑거름이 되어 자신을, 한생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보석이 땅속에 묻혀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것처럼 애국의 마음은 그것이 비록 언저리도 드러내지 않는것이며 언제나 아름답다.》**

우리가 매일 법상히 오르내리며 리용하는 궤도전차이다. 출퇴근길에서나 혹은 이른아침 떠난 출장길에서나 언제나 도움을 받는 궤도전차.

하지만 하루종일, 일년내내 수도의 기리를 누비며 페루우를 달리는 궤도전차의 운전사들과 차장들의 수고를 헤아리는 사람은 얼마인사.

얼마전 아침 궤도전차에서였다. **《어머니발이예요.》**

10살쯤 돼보이는 한 처녀가 궤도전차장님더러 차장에게 반박을 넘겨주며 하는 말이였다. 그리고는 책가방을 털어내며 먼 길을 되돌아 말하였다. **《어머니발이예요? 차장은 분명 처녀인데...》**

호기심을 안고 우리는 차장에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공화국공민으로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당이 맡겨준 조소에서 전력적으로 성실하게 일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양철도비공장에서 보배로 떠날때는 한 여성로동자를 그로 일군들은 이렇게 소개하였다. **《우리 공장의 30여년 만근자입니다.》**

고급기능공인 유영숙동무는 30여년전 철도수송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내린 후에도 어렵고 힘든 조소인 공장에서 진출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 직종에서 일해오고있다.

만근의 그날 그는 객차생산과 철도전기공사, 철도공정장건설을 비롯하여 철도운수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개건문과 주체사상탑, 서해감문을 비롯한 기념비적장물들에도 그의 성실한 땀이 스며배어있다.

송산궤도전차사업소

계 학생이 누군가고 물었다. 그러자 그가 웃으며 하는 말이 지금 달리는 궤도전차의 운전사가 학생의 어머니라는것이였다. 궤도전차운전사가 여성이라는것도 놀라웠지만 이른 새벽부터 수도의 려객운수보장을 위해 바치는 그의 남모르는 수고와 헤아려져 가슴이 뭉클하였다.

궤도전차를 내린 후에도 우리는 멀어져가는 전차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만경대-평양궤도전차 1134호의 여성운전사, 그는 과연 어떤 사연을 안고 궤도전차를 몰고있는것인가.

며칠후 우리는 송산궤도전차사업소에서 그 궤도전차의 운전사 장영희동무를 만났다. 만나고보니 소박한 여성이였다. 로동자가정의 주부였고 귀여운 딸이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속에는 그 어떤 제부라도 살수 없는 진주보석이 가득차있었다.

10여년전 위대한 장군님께 궤도전차운전사로 한생을 빛낼 일 맹세의 편지를 삼가 올리고 려객운수부문에 탄원해온 장영희동무이다. 그때로부터 하루도 변심이 없이 달린 운행길에 수놓아진 헌신의 이야기를 여쭙 한 두마디로 다 말할수 있겠는가.

사업소에 하나밖에 없는 여성소대장인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는 자기의 말을 막았으며 그는 말하였다. **《제가 아니면 누구든지 이 일을**

있게 전진한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근로자들이 맡은 일, 그것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당의 지시이다.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정확히 수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조국의 전진, 혁명의 동무이다. 그레로부터 하루도 변심이 없이 달린 운행길에 수놓아진 헌신의 이야기를 여쭙 한 두마디로 다 말할수 있겠는가.

사업소에 하나밖에 없는 여성소대장인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는 자기의 말을 막았으며 그는 말하였다. **《제가 아니면 누구든지 이 일을**

있게 전진한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근로자들이 맡은 일, 그것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당의 지시이다.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정확히 수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조국의 전진, 혁명의 동무이다. 그레로부터 하루도 변심이 없이 달린 운행길에 수놓아진 헌신의 이야기를 여쭙 한 두마디로 다 말할수 있겠는가.

사업소에 하나밖에 없는 여성소대장인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는 자기의 말을 막았으며 그는 말하였다. **《제가 아니면 누구든지 이 일을**

있게 전진한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근로자들이 맡은 일, 그것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당의 지시이다.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정확히 수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조국의 전진, 혁명의 동무이다. 그레로부터 하루도 변심이 없이 달린 운행길에 수놓아진 헌신의 이야기를 여쭙 한 두마디로 다 말할수 있겠는가.

사업소에 하나밖에 없는 여성소대장인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는 자기의 말을 막았으며 그는 말하였다. **《제가 아니면 누구든지 이 일을**

종업원들

부러는 궤도전차를 꼭 제살붙이처럼 여겨는 류금철동무였다. **《제 자식이 아파하면 가만있을 부모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의 말이 우리 가슴을 뭉클했다. 궤도전차의 차체에 조금이라도 긁힌 자리가 생기면 제몸의 상처처럼 가슴아파고 밤을 새워서라도 도색제를 얻어 깨끗이 칠하곤 하는 그, 그래서 1002호는 언제나 결과 안 그 어디를 보나 새차처럼 윤기흐르고 정갈하다.

이런 류금철동무에게 항상 맡은 일에서 모범이었고 그가 운전하는 1002호궤도전차는 여러차례의 애차판정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니었다. 그는 다른 운전사들의 일도 자기 일처럼 도와준다. 교대를 마친뒤 다른 운전사들의 전차정비를 도와주고 그러다가 밤교대를 끝날 때가 되면 마지막정차를 하고 로션을 들면서 교장사 세워둔 전차는 없는가, 정류소에 서있는 손님들이 없는가를 알아보고 한다.

직업에 애착을 가지지 못한 다는것을 알고 마주앉았다. **《물론 처녀시절에 꿈도 많았을지 모르지만 생각해보자. 세상에 나서 자기 행생을 인민을 위해 바친다는것이 얼마나 보람찬 일인가. 그래서 우리 궤도전차에 도새기지 않아요.》**

그리면서 그는 어디에서 일하는가 중요하진 않나 아니라 자기 가 하는 일이 나라에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한다. **《물론 처녀시절에 꿈도 많았을지 모르지만 생각해보자. 세상에 나서 자기 행생을 인민을 위해 바친다는것이 얼마나 보람찬 일인가. 그래서 우리 궤도전차에 도새기지 않아요.》**

그리면서 그는 어디에서 일하는가 중요하진 않나 아니라 자기 가 하는 일이 나라에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한다. **《물론 처녀시절에 꿈도 많았을지 모르지만 생각해보자. 세상에 나서 자기 행생을 인민을 위해 바친다는것이 얼마나 보람찬 일인가. 그래서 우리 궤도전차에 도새기지 않아요.》**

그리면서 그는 어디에서 일하는가 중요하진 않나 아니라 자기 가 하는 일이 나라에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한다. **《물론 처녀시절에 꿈도 많았을지 모르지만 생각해보자. 세상에 나서 자기 행생을 인민을 위해 바친다는것이 얼마나 보람찬 일인가. 그래서 우리 궤도전차에 도새기지 않아요.》**

그리면서 그는 어디에서 일하는가 중요하진 않나 아니라 자기 가 하는 일이 나라에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한다. **《물론 처녀시절에 꿈도 많았을지 모르지만 생각해보자. 세상에 나서 자기 행생을 인민을 위해 바친다는것이 얼마나 보람찬 일인가. 그래서 우리 궤도전차에 도새기지 않아요.》**

그리면서 그는 어디에서 일하는가 중요하진 않나 아니라 자기 가 하는 일이 나라에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한다. **《물론 처녀시절에 꿈도 많았을지 모르지만 생각해보자. 세상에 나서 자기 행생을 인민을 위해 바친다는것이 얼마나 보람찬 일인가. 그래서 우리 궤도전차에 도새기지 않아요.》**

그리면서 그는 어디에서 일하는가 중요하진 않나 아니라 자기 가 하는 일이 나라에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한다. **《물론 처녀시절에 꿈도 많았을지 모르지만 생각해보자. 세상에 나서 자기 행생을 인민을 위해 바친다는것이 얼마나 보람찬 일인가. 그래서 우리 궤도전차에 도새기지 않아요.》**

한 지붕 아래서

자기 지식, 자기 가정만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웃을 먼저 생각했고 남의 이름을 먼저 생각했다.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었기에 한들도 아닌 수십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제살붙이같이 키울수 있었던것이다.》**

고 로동계급이 되었으며 학생이 되고 어머니와 같이 도로관리원이 되었다. 그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있었으며, 집살림도 어려웠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그의 가정에도 식량난, 생활난이 겹쳐졌다.

그러나 장영희동무는 자기 지식, 자기 가정만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웃을 먼저 생각했고 남의 이름을 먼저 생각했다.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었기에 한들도 아닌 수십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제살붙이같이 키울수 있었던것이다.》**

고 로동계급이 되었으며 학생이 되고 어머니와 같이 도로관리원이 되었다. 그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있었으며, 집살림도 어려웠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그의 가정에도 식량난, 생활난이 겹쳐졌다.

그러나 장영희동무는 자기 지식, 자기 가정만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웃을 먼저 생각했고 남의 이름을 먼저 생각했다.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었기에 한들도 아닌 수십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제살붙이같이 키울수 있었던것이다.》**

고 로동계급이 되었으며 학생이 되고 어머니와 같이 도로관리원이 되었다. 그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있었으며, 집살림도 어려웠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그의 가정에도 식량난, 생활난이 겹쳐졌다.

그러나 장영희동무는 자기 지식, 자기 가정만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웃을 먼저 생각했고 남의 이름을 먼저 생각했다.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었기에 한들도 아닌 수십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제살붙이같이 키울수 있었던것이다.》**

고 로동계급이 되었으며 학생이 되고 어머니와 같이 도로관리원이 되었다. 그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있었으며, 집살림도 어려웠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그의 가정에도 식량난, 생활난이 겹쳐졌다.

그러나 장영희동무는 자기 지식, 자기 가정만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웃을 먼저 생각했고 남의 이름을 먼저 생각했다.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었기에 한들도 아닌 수십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제살붙이같이 키울수 있었던것이다.》**

고 로동계급이 되었으며 학생이 되고 어머니와 같이 도로관리원이 되었다. 그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있었으며, 집살림도 어려웠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그의 가정에도 식량난, 생활난이 겹쳐졌다.

사 랑 과 정

얼마전 본사편집국으로 한 인민군공원이 편지를 보냈다. 거기에는 사정에 처한 자기 어머니를 위해 바친 평양시제2인민병원의 의료일군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어머니는 편지에서 꼭 두말만에 제발로 땅을 짚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근 70일동안이나 어머니를 위해 치료**

를 받았다고 합니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런 일을 생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는 우리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지에서 담긴 인민군공원의 절절한 심정, 그것은 집단주의가 생명인 우리 사회에 흔히 있게 되는 하나의 사실이 지나지 않는다.

고 로동계급이 되었으며 학생이 되고 어머니와 같이 도로관리원이 되었다. 그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있었으며, 집살림도 어려웠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그의 가정에도 식량난, 생활난이 겹쳐졌다.

그러나 장영희동무는 자기 지식, 자기 가정만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웃을 먼저 생각했고 남의 이름을 먼저 생각했다.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었기에 한들도 아닌 수십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제살붙이같이 키울수 있었던것이다.》**

고 로동계급이 되었으며 학생이 되고 어머니와 같이 도로관리원이 되었다. 그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있었으며, 집살림도 어려웠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그의 가정에도 식량난, 생활난이 겹쳐졌다.

그러나 장영희동무는 자기 지식, 자기 가정만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웃을 먼저 생각했고 남의 이름을 먼저 생각했다.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었기에 한들도 아닌 수십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제살붙이같이 키울수 있었던것이다.》**

고 로동계급이 되었으며 학생이 되고 어머니와 같이 도로관리원이 되었다. 그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있었으며, 집살림도 어려웠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그의 가정에도 식량난, 생활난이 겹쳐졌다.

그러나 장영희동무는 자기 지식, 자기 가정만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웃을 먼저 생각했고 남의 이름을 먼저 생각했다.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었기에 한들도 아닌 수십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제살붙이같이 키울수 있었던것이다.》**

고 로동계급이 되었으며 학생이 되고 어머니와 같이 도로관리원이 되었다. 그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있었으며, 집살림도 어려웠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그의 가정에도 식량난, 생활난이 겹쳐졌다.

하나전체는 전체를 위하여

얼마전 본사편집국으로 한 인민군공원이 편지를 보냈다. 거기에는 사정에 처한 자기 어머니를 위해 바친 평양시제2인민병원의 의료일군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어머니는 편지에서 꼭 두말만에 제발로 땅을 짚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근 70일동안이나 어머니를 위해 치료**

를 받았다고 합니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런 일을 생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는 우리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지에서 담긴 인민군공원의 절절한 심정, 그것은 집단주의가 생명인 우리 사회에 흔히 있게 되는 하나의 사실이 지나지 않는다.

고 로동계급이 되었으며 학생이 되고 어머니와 같이 도로관리원이 되었다. 그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있었으며, 집살림도 어려웠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그의 가정에도 식량난, 생활난이 겹쳐졌다.

그러나 장영희동무는 자기 지식, 자기 가정만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웃을 먼저 생각했고 남의 이름을 먼저 생각했다.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었기에 한들도 아닌 수십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제살붙이같이 키울수 있었던것이다.》**

고 로동계급이 되었으며 학생이 되고 어머니와 같이 도로관리원이 되었다. 그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있었으며, 집살림도 어려웠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그의 가정에도 식량난, 생활난이 겹쳐졌다.

그러나 장영희동무는 자기 지식, 자기 가정만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웃을 먼저 생각했고 남의 이름을 먼저 생각했다.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었기에 한들도 아닌 수십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제살붙이같이 키울수 있었던것이다.》**

고 로동계급이 되었으며 학생이 되고 어머니와 같이 도로관리원이 되었다. 그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있었으며, 집살림도 어려웠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그의 가정에도 식량난, 생활난이 겹쳐졌다.

그러나 장영희동무는 자기 지식, 자기 가정만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웃을 먼저 생각했고 남의 이름을 먼저 생각했다.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었기에 한들도 아닌 수십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제살붙이같이 키울수 있었던것이다.》**

고 로동계급이 되었으며 학생이 되고 어머니와 같이 도로관리원이 되었다. 그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있었으며, 집살림도 어려웠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그의 가정에도 식량난, 생활난이 겹쳐졌다.

눈은 실천으로 이어진다

《첫물살수가 생겼길래 가져왔는데 애들에게 갖보려구요.》 최경숙동무는 지난 시기에도 이렇게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온 하였다. 최경숙동무의 집에는 아버지 가 남긴 수기와 남편의 사회주의애국생애, 아들의 애국열사들이 정히 보관되어있다.

그의 아버지 최송운은 아버지수령님을 여러차례 만나 뵈고 귀중한 가르침을 받았으며 당의 크나큰 믿음속에 계급 투쟁의 전초전에서 용감히 싸운 인민보안군이었다. 남편 김상

운은 조국이 어려운 시련을 겪던 시기에 강철중선에 떨쳐나선 황철로동계급의 후방사업을 위해 헌신의 길을 걸다 심장질환을 앓고 세상을 떠났다. 아들 김명일은 군사일부서행동준비대의 위험이 조성되었을 때 동지들을 구원하고 정초를 바치였다. 최경숙동무는 당과 조국을 위해 몇몇한 생의 자욱을 남긴 아버지와 남편, 아들의 고귀한 넋을 자기의 불꽃같은 실천으로 이어갈 맹세를 가다들었다.

그는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안고 황해철련합기업소 건설직장과 여러 작업장들을 찾아 구용해공들과 로동자들을 고무해주었다.

지성어린 원호물자들을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준 때가 그에게는 제일 기쁜 날들로 되었다. 이렇게 1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시련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을 위해 그리고 세포지주 출신기지건설에 참가한 동지들을 위해 그는 뜨거운 진정을 바치였다. 누가 보지말진, 알아주지말진 당에서 바라는 일을 할가리라도 더 찾아하기 위해 아글라꿈에 쓰며 최경숙동무는 오늘도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있다.

그는 이번 전람회 조선의 강성국가건설과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며 말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된 도서들과 자료들을 돌아보았다.

이런 전람회 참가자들의 성의 있는 노력과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며 그는 제9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개막을 선언하였다. 다음으로 로씨야 인문과학기금 대표단 단장인 김창익이 프리들라노츠체제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국

적, 사회적관심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함께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병도자이신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며, 제9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의 성공과를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근로자의 위훈

작은 분묘의 교단에서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고있다. 한성도록 웃김만을 짜는 방직공도 있고 날마다 똑같은 기계부속품들을 줄줄이 깎는 선반공도 유원지의 한 구간을 맡아 매일같이 가꾸는 관리원도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마치 빛나는 위훈과는 거리가 먼 보통일처럼 보인다. 불과 불이 오가는 전쟁판의 승리나 위기위기의 순간 자기 한몸을 주저없이 내대는 헌신적 희생성파는 저의나 인원이 없게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처럼 평범한 로동의 하루하루, 그 결과들이 합쳐져 거대한 물질적부가 창조되고 인민의 행복이 꽃피며 조국이 힘있게 전진하는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지어 40년, 50년의 만근자들도 만나보았다. 한결같이 인상깊은, 수수해도 돋보이는 모습들이었다. 그들이 새겨온 한겨레한계의 출근기록에서, 년년이 넘던 인민경제계획수행량에서, 오랜 나날속에 쌓은 고급기능과 문제해결의 열의로 된 보람 및 창고의고안들에서 우리는 평범한 나날의 위훈이 어떤것인가를 때때로 느꼈다.

각지의 수많은 만근자들, 바로 그들속에서 헌신자도 영웅도 나왔다. 돌이켜보면 아버지장군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에 10월에 몸가까이 부르시어 성대한 연회까지 차려주시고 합창남도의

제9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개막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인민대학습당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리석상에 인사사를 드렸다. 개막연설을 김정숙위원장님이 하였다.

그는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가 인류공동의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고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번 전람회 참가자들의 성의 있는 노력과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며 그는 제9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개막을 선언하였다.

다음으로 로씨야 인문과학기금 대표단 단장인 김창익이 프리들라노츠체제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국

적, 사회적관심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함께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병도자이신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며, 제9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의 성공과를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제9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개막식. 위훈을 새겨온 만근자들과 영웅, 만근자와 애국자! 그것은 결코 서로 거리가 먼 호칭들이 아니다. 당과 조국이 맡겨준 일터에 피와 땀을 바치고 뜨거운 정을 쏟는 성실한 만근자들이 일터에 뜻밖의 위험이 닥쳐왔을 때 한 몸을 내어 귀중한 설비들과 국가재산을 구원할것이며 진화의 날이 오면 불꽃은 화점을 향해 서슴없이 달려갈것이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길이 남는 리수복과 안영애, 강호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인민대학습당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리석상에 인사사를 드렸다. 개막연설을 김정숙위원장님이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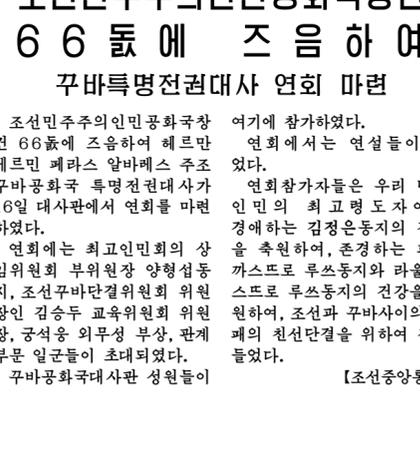
그는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가 인류공동의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고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번 전람회 참가자들의 성의 있는 노력과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며 그는 제9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개막을 선언하였다.

다음으로 로씨야 인문과학기금 대표단 단장인 김창익이 프리들라노츠체제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국

적, 사회적관심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함께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고 하면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 조별리그전 경기 장면. 우리 나라 팀이 월남팀을 5:0으로 이겼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열린 대회 개막식. 위훈을 새겨온 만근자들과 영웅, 만근자와 애국자! 그것은 결코 서로 거리가 먼 호칭들이 아니다. 당과 조국이 맡겨준 일터에 피와 땀을 바치고 뜨거운 정을 쏟는 성실한 만근자들이 일터에 뜻밖의 위험이 닥쳐왔을 때 한 몸을 내어 귀중한 설비들과 국가재산을 구원할것이며 진화의 날이 오면 불꽃은 화점을 향해 서슴없이 달려갈것이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길이 남는 리수복과 안영애, 강호

